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594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8월 8일)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잘 풀리는 한가위 되세요" 강기정 시장, 추석 민생 속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 방문해 격려
봉선시장 장보기·외국인노동자축구대회 등 참여하며 소통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통시장 장보기와 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점들을 들을 예정이다. 또 시민 지원을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는 생활현장을 찾아 근로자와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강 시장은 먼저 24일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부모와 아이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주지역 유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을 방문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기독병원)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인근에 당직약국(해오른온누리약국·나래약국)을 지정해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6일에는 남구 봉선시장을 찾아 육류·과일·건어물 등 제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또 안전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검사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공직자들을 격려한다.

29일에는 광주지역 12개 법정동(16개 자연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열리는 '지산한마당 100주년 기념 축구대회'에 참여해 축구와 전통놀이를 즐긴다. 또 광산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에 참석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안정적 체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풀리는 한가위 보내기'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난 13일부터 추석 종합대책 3개 분야 10개 항목 4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기아, '더 기아 레이 EV' 출시

기아가 '더 기아 레이 EV(이하 레이 EV)'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레이 EV는 지난해 기아가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이하 레이)'의 전기차 모델이다.

14인치 알로이 휠과 충전구가 중앙에 적용된 전면부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 등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세련된 외장 디자인을 갖췄으며, 실내에 적용한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기아는 레이 EV에 35.2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공기역학 성능을 높여주는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를 적용해 복합 205km · 도심 233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m/kWh의 복합전비를 달성했다.

레이 EV는 150kW급 급속 충전기로 40분 충전 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 충전 시간은 배터리 온도 및 외부 기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레이 EV의 구동모터는 최고출력 64.3kW(약 87ps)와 최대토크 147Nm를 발휘해 최고출력 76ps(약 55.9kW) 및 최대토크 9.7kgf · m(약 95.1Nm)의 가솔린 모델보다 더 나은 가속성능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아는 레이 EV에 정체 구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오토 홀드'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과 주행을 하지 않을 때 공조, 오디오 등 전기장치를 장시간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모드'를 적용해 주행 전 · 후 다양한 상황에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레이 EV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2천775만원 ▲에어 2천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천745만원 ▲에어 2천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천735만원 ▲에어 2천780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고객이 레이 EV를 구매할 경우 국고 보조금 512만원 및 지자체 보조금 135만원 등 총 647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은 2천128만원, 4인승 승용 에어 트림은 2천308만원 등 2천만원대 초중반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레이 EV는 경형 전기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이날 기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0영업일 동안 레이 EV의 사전계약이 약 6천대 이상 접수되며 올해 판매목표로 설정한 4천대를 5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계약 중 개인 고객은 약 55%이고, 연령별로는 30대 30%, 40대 42%로 3040 고객이 72%를 차지하며 도심형 엔트리 EV를 지향하는 레이 EV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레이 EV는 4인승 승용/2인승 밴/1인승 밴 등 3가지 모델과 라이트/에어 등 2가지 트림을 조합할 수 있는데, 전체 계약 중 4인승 승용 모델을 계약한 고객은 약 89%였으며, 이 중 약 89%는 차로 유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운전석 풀 폴딩 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등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된 에어 트림을 선택했다.

한편 기아는 차량 공유 업체 '쏘카'와 협업해 레이 EV의 우수한 상품성을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기아는 쏘카 회원을 대상으로 레이 EV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 설문을 통해 차량 이용 형태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이용 고객 선착순 1천500명 대상 계약금 지원 이벤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충전비 30만원 캐시백 지원 이벤트 ▲'생활 EV의 시작'을 주제로 한 광고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준비했다.

기아 관계자는 "레이 EV는 도심형 엔트리 EV로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차 고객에게 합리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승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레이 EV는 물론 전동화 모빌리티에 대한 기아의 진정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기아가 '더 기아 레이 EV(이하 레이 EV)'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레이 EV는 지난해 기아가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이다. 레이 EV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2천775만원 ▲에어 2천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천745만원 ▲에어 2천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천735만원 ▲에어 2천780만원이다. /기아 제공